

오늘의 성경 한 장

2026.6.22.(월)-2026.6.27.(토)

사도행전 12-17 장

이렇게 성경을 읽읍시다.

1. 기도: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해 주세요.”
2. 성경읽기: 성령님을 의지하여 질문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3. 가정 기도문 읽기
4. 기도: 깨달은 내용을 감사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관악교회
고신총회
Gwanak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08819 서울특별시관악구대학길 52(신림동), 3층

<http://www.GwanakChurch.org/> 전화: 070-8682-3991

사도행전 12 장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롯 안티파스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기적으로 풀려나서 복음은 왕성 (찬송 10 장)

2026-6-22, 월

맥락과 의미

사도행전 전반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12 장: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방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 교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신앙적, 신학적 준비). 이방 교회를 세울 사도를 준비합니다(사도 바울, 사람의 준비).

13-28 장: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방과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12 장은 헤롯으로부터 오는 핍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 왕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세상 왕을 심판하십니다. 교회는 흥왕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비슷한 일이 사도들에게 일어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땅의 교회를 통해 계속 일하십니다.

1. 헤롯의 핍박과 천사를 통한 구원(1-11 절)
2. 베드로의 석방에 대한 교회의 반응: 처음에는 믿지 않음(12-19 절)
3. 헤롯의 죽음과 교회의 성장(20-25 절)

1. 헤롯의 핍박과 천사를 통한 구원(1-11 절)

1 절에 나오는 헤롯(아그립마 1 세)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못 박은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1-2 절). 야고보는 12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3 절, 헤롯은 사도를 죽이는 것을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습니다(유월절날 이후의 7 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교절 후에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4 절, 군사 네 명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두 명의 군사를 베드로 좌우에 줄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명은 감옥 바깥에서 지켰습니다.

5 절, 교회는 바깥에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눅 22:44)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 교회 안에서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4 장에서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 앞에서 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행 4:24). 핍박자 헤롯과 그의 뒤에 있는 사단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여러 문제 앞에서 낮놓고 있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병, 인간 관계의 문제, 정치 사회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두고 기도합시다. 고난이 심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면 그 문제와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어느 경우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7 절,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편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은 쇠사슬을 통해 두 명의 군사에게 묶여 있는데도 태평입니다.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 천사는 그의 “옆구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때려 죽이는 데 쓰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감옥이 안락한 호텔과 같은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불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시 3:46).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며 평화를 누렸던 앞서 간 성도들의 모범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순교한다면 영광이다. 살려주시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평안함을 누립시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낙관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잠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눅 22:44)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눅 22:45). 그러나 이번에는 육체는 잠자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편하게 잠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함께 졸고 잠졌던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때 같이 졸던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바깥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평안은 교회의 기도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의 능력 안에서 베드로는 내일 순교할 수 있는 이 밤을 평안히 지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은 그분의 천사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쇠사슬을 벗깁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8 절) 베드로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감옥 바깥으로 나와서야 실제로 일어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테반과 야고보를 순교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순교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앞으로 20 년 이상 교회를 위해 일한 후에 순교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단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 중 어떤 사람은 순조롭게 인생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일찍 죽게도 하시고 오래 살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2. 베드로의 석방에 대한 교회의 반응: 처음에는 믿지 않음(12-19 절)

12 절, 베드로가 수감되어 있을 동안 교회는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이름도 있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위층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제자가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던 그 다락방입니다(행 1:14).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첫 번째 성찬을 한 곳도 이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는 풀려난 다음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13 절, “로데”라는 소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집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성도들은 “미쳤다”(15 절)고 했습니다. 그녀는 “힘써” 말했습니다(15 절). “참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녀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굽히지 않고 기쁜 소식을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태도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끈기 있게 복음을 말합시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17 절,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서 나온 일을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예수님의 친동생)와 형제들(사도들을 말하는 듯합니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책임진 교역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18,19 절,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헤롯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심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기적으로 풀려날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풀려날 때도 환상으로만 알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나 왔는데도, 계속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리를 위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던 그들도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기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보통의 은혜에 만족했습니다. 말씀과 성례로 은혜 받고,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받는 것을 일상의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적 신앙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기적)를 주실 지, 일상적인 은혜를 주실 지는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유익, 구원)을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기적을 바라지 말고 일상에서 신뢰하며 나갑시다. 이 신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담담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편하게 안식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 헤롯의 죽음과 교회의 성장(20-25 절)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를 방문했습니다. 축제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이 클라우디우스 시저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 황제를 기념하려고 제정한 축제일이었습니다(21 절).

헤롯은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곳에 앉았습니다. 백성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이 가이사랴로 내려와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헤롯의 나라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신의 소리”(22 절)라고 아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죽이려던 베드로를 구원한 주님의 천사는 헤롯을 쳐서 죽였습니다.

헤롯의 몸에 “벌레”(23 절)가 생겨 죽었습니다. ‘구더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막 9:48).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벌레를 하나님은 미리 헤롯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의 몸 안에 구더기를 보내서 가볍게 심판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힘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몸은 죽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합시다(눅 12:4-5).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눅 12:6-8).

23 절, 헤롯이 “죽었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과 다른 한 곳에만 나옵니다.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떠났다”(5:5,10)고 합니다. 겐으로 교회를 위해 많이 섬기는 자,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생육하고) 더하더라(번성하다).”(24 절) 사도행전 6:7을 반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풍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이 풍요하고 그 결과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 말씀을 사모합시다. 풍성히 전하고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도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우리 가정에 주시는 자녀들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25 절, “바나바와 사울(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조’는 구제의 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복종할 일

베드로를 죽을 고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겹내지 맙시다. 기도하며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가집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섭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생육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수적으로도 성장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역경 가운데 인내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합니다. 장래 일에 대해 굳게 믿으며, 말씀을 받고 전합니다.(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8 문).

우리와 우리가 속한 교회 혹은 조직이 항상 겸손하도록 기도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가 교만하면 항상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15 절, 힘써 말하다(다-이스퀴리조마이)

소녀 로테는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집안으로 달려가 교회에게 “힘껏 말했습니다”(다-이스퀴리조마이, 15 절). “참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다른 성도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날 저녁에도 한 여자 종이 베드로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눅 22:56). 베드로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눅 22:58)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여”(다-이스퀴리조마이, 눅 22:59)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과거에 여자 종과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 베드로를 교회도 부인합니다. 그가 살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한 소녀가 베드로를 힘써 변호합니다. 베드로가 한때 힘써 부인했던 그리스도는 살아서 하늘에 계십니다. 이제는 한 소녀를 통해 베드로가 살아왔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드로는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 두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강하게 주장한 그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 믿음의 소녀가 강하게 변호했듯이 베드로는 부활하여 권능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신할 것입니다.

<참고> 12 장과 46 장의 관계

12 장과 46 장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혹은 헤롯)가 사도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교회는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1-12 장)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때 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 성장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성장함을 가르칩니다.

<참고> 5 절,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는 바깥에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액-테노스)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44,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액-테네스)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 교회 안에서 계속됩니다.

<참고> 23 절, 헤롯이 죽음=아니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떠남’

23 절, (헤롯이) “죽었다”(액-프시코)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과 다른 한 곳에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5:5,10 에 성령을 속였던 아니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떠났다”(액-프시코)고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속인 것은 성령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위선자들의 영혼을 이 땅에서 떠나보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의 영혼을 떠나게 하십니다. 겉으로 교회를 위해 많이 섬기는 자,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교회를 향한 보호하심을 교회의 모든 적에게 계속 나타내십니다.

<참고> 교회의 핍박당함과 시편 2 편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협박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 교회는 시편 2 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시 2:1, 행 4:25-26).

같은 시편 2 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왕과 관원들아, 교훈을 듣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발에 입을 맞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처럼 헤롯 왕은 길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베드로는 계속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참고> 24 절, 말씀이 “홍왕하여 더함”=6:7=창세기 1:28

24 절, 헤롯이 교회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홍왕하여(아욱사노, 생육하고) 더했습니다(플래티노, 번성하다)”.

6:7 을 반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풍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3 절, 헤롯은 악을 더했습니다(프로스-띠테미). 24 절,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계속 더하십니다(포스트-띠테미).

창세기 1:28 의 복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이 풍요하고 그 결과 성도의 수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구제하는 일(11:29,30, 12:25) 사이에 교회의 핍박과 헤롯의 죽음을 이야기해 줌

25 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조’는 구제의 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11 장 후반부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위해 갔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11:29,30).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이야기 사이에 베드로에 대한 핍박과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이야기가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구원과 헤롯의 심판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는 악한 자를 포위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렇게 미래로 전진합니다.

사도행전 13 장

안디옥 지역 교회의 예언자들 중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냄, 바울의 1 차 교회 개척: 아시아 [터키] 전도 (찬송 5 장)

2026-6-23, 화

맥락과 의미

사도행전 13 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13-28 장은 이방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중심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교회는 지중해를 둘러싼 터키(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유럽)로 확장됩니다.

13-14 장에서는 바울의 1 차 교회 개척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후 46-48 년 기간입니다. 바울이 섬기던 안디옥(시리아 지역)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 개척자로 파송합니다. 그들은 터키의 중동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13 장에는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14 절)은 바울의 교회가 있는 시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사도행전 2 장의 베드로의 설교, 7 장의 스테반의 설교, 13 장의 바울의 설교는 교회가 동일한 복음을 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적 복음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보편교회)로 온 세계에 확장됩니다.

1.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함(1-3 절)
2. 키프로스 섬 바보에서 전도함(4-12 절)
3.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도 설교함(13-52 절)

1.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함(1-3 절)

1 절, 바울이 섬기던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는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다 합니다. 다섯 명의 선지자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습니다. 선지자는 그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약간의 새로운 계시를 받습니다. 교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사를 “교사”이며 “목사”(엡 4:11)라 할 수 있습니다.

5 명의 선지자=교사 가운데 “마나옴”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 받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당시 무시당하고 있던 교회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의 안락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세와 같습니다(히 11:28). 소명이 안락보다 더 귀합니다.

시몬은 “니케르”(니그로, 피부가 검은)라고 불렸습니다. 흑인입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계층이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다양한 성도들로 세워졌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인간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성도들이 부대끼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연단되게 하십니다.

2 절, “주를 섬겨”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른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4 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파송은 성령의 파송을 의미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자신의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2. 키프로스 섬 바보에서 전도함(4-12 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의 “구브로”(키프로스)에 도착합니다. 5 절, 그 섬의 “살라미”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19 장까지는 유대인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19 장의 에베소에서는 회당을 떠납니다. 두란노 서원을 임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다(12:25). 마가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사도들이 기도하던 그다락방 주인의 아들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수종자, 곧 인턴 선교사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선교 여행이 힘들었나 봅니다. 키프로스 섬을 떠나 터키 지역에 상륙했을 때, 선교팀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13 절).

6 절, 바보라는 곳에 “바예수”(예수의 아들이라는 뜻)라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무당: 동방박사와 동의어)가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점을 치는 무당이 천문학을 같이 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8 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7 절) 총독에게 자문 역할을 해 왔던 듯합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은 바울을 자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당은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9 절,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책망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충만하다).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마귀가 사람을 거짓으로 충만케 하여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의 세력에 붙잡힌 반대 세력이 있음을 압시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악을 책망하며 이깁시다.

11 절, 바울이 심판을 선언한 대로 그 무당은 소경이 되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내리시는 목적은 말씀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 신앙을 의지하는 것보다 말씀을 믿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3.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도 설교함(13-52 절)

1)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13-15 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키프로스) 섬에 갔습니다. 그 섬의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터키 남부의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시리아)과 다른 지역입니다.

14 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당시에 회당에서는 그곳을 방문한 유대인 형제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권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권하는 것(위로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두려워하는 사람, 16,26 절)은 유대교로 완전 개종은 하지 않고,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의 도덕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경건한 사람들”(43 절)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자를 말합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른 “경건한”(50 절) 여성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반대하게 했습니다.

2) 복음의 증거(16-41 절)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은 청중을 부르는 말을 세 번 반복하는 것(16,26,37 절)으로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바울이 전도 설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함(16-25 절)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주셨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주를 세웠습니다. 그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십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을 높입니다.

b)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26-36 절)

26 절, “형제들아” 로 새로운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말씀”을 보냈습니다(26 절). 하지만 예루살렘 시민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였습니다(27 절). 그들은 회당에서 매일 읽는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백성의 살인을 통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이사야 53 장처럼 메시야는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31 절). 구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세 가지 예를 듭니다.

① 33 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시편 2:7) “오늘”은 부활한 날을 의미합니다. “낳았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34 절, “거룩하고 미쁘”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사 55:3) 이 “거룩하고 미쁘” 것은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후손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다스리게 하십니다.

③ 35 절, “주(당신)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시 16:10)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c) 믿고 의롭게 되도록 초대함(37-41 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목적은 우리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38 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39 절).

그러나 멸시하는 자는 멸망시키십니다. 바울은 하박국 1:5 말씀을 인용하여 경고합니다. “놀라고 멸망하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41 절)은 원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립시다.

3) 복음 전도의 결과(42-52 절)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42,44,46,48,49 절). 교회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45 절).

바울은 이사야 49:6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47 절). 그는 이방인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48 절,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는 우리 주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51 절, 유대인의 핍박이 있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마 10:14)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52 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9 절). 복음을 전하고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믿고 복종할 일

바울의 1 차 전도 여행에 관한 13 장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납니다(2,4,52 절).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일에 성령님이 복음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단의 공격과 사람들의 반대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힘주셨습니다. 유대인의 반대가 많았으나 오히려 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복음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목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핍박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삶은 “이방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마 5:14)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

사도행전 1-12 장은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고난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됩니다. 이방인 교회(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이방 지역의 교회 개척을 위해 교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신학적 준비). 이방 교회 개척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시킵니다(사람의 준비).

13-28 장은 이방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중심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는 지중해를 둘러싼 터키(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유럽)로 확장됩니다.

바울의 1 차 교회개척:
갈라디아(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 전도,
파송 교회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옴
(찬송 시편 1 편 - 악보는 주보 및 홈페이지 참고)

2026-6-24, 수

맥락과 의미

13 장에서 바울은 1 차 교회개척 활동(주후 46-48 년)을 시작했습니다.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다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14 장에서도 13 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후 파송 교회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형식은 다르지만 계속 일하십니다. 복음 전파자와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1.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파, 표적과 기사로 증거함, 핍박당함(1-5 절)
2. 루스드라에서 견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복음 전파(8-18 절)
3. 교회를 견고하게 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옴(19-28 절)

1.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파, 표적과 기사로 증거함, 핍박당함(1-5 절)

1 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2 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유대인 교회, 믿는 사람)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많은 이방인이 믿었습니다.

3 절, “두 사도”는 바나바와 사울을 말합니다. 열두 사도와 바울 사도 외에도 초대교회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빌 2:25).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말해야 할 복음을 전부 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해야 할 모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에 대한 교회의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

두 사도는 “주를 힘입어”(3 절) 말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3 절).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사도의 말이 ‘진짜’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전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이 표적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필요할 때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때와 같은 기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오늘 날에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특별한 기적만 구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잘한 일에 대해 칭찬받고 사탕만을 받기 요구하는 유치한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말씀을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강한 확신, 사랑, 나눔 등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쁨으로 참고 나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 생활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4 절, 이고니온 주민은 유대인과 사도를 따르는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좋은 분열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좋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더 변화되어 갈수록 보통 사람과 달라집니다.

이 다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변화된 삶 때문에 세상에 분열을 일으키면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킵시다. 그러나 항상 겸손합시다. 성령님은 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 12:18)

5 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다”는 전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돼지 떼에 들어가게 허락했을 때 돼지들이 호수로 “내리 달라”(막 5:13) 했는데 그때 쓰인 말입니다.

사도행전 7:57 에서는 분노한 군중이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 19:29 에서는 에베소의 우상숭배자들이 몇 시간 열광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군중은 귀신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악한 일을 합니다. 사단과 귀신에 떠밀려 달려듭니다. 분노 속에 일어나는 집단 행동 가운데 귀신이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때 기억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마귀)을 상대함이라.”(엡 6:12)

성령님의 “전신 갑주”(엡 6:13)를 입읍시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서 자신을 무장합시다(엡 6:13-18). 그래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끌려 다니지 맙시다. 정치적 활동, 기업 활동, 소비 생활(옷, 가전제품)등에서 유행을 그냥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의 강한 흐름 가운데 사단의 강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기도 가운데 “깨어”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눅 21:36).

6 절, 두 사람은 핍박할 때 “알고 도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임명한 후에 주신 사역 지침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동네(폴리스, 도시, 성)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다른 곳으로) 피하라”(마 10:23). 바울은 12 사도와 같은 사도로서 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풀려났습니다. 그 기적을 “깨닫고”(행 12:12) “떠나 다른 곳으로 가”(12:17) 피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14:6) 도망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2.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복음 전파(8-18 절)

바울은 이고니온보다 남동쪽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가서 다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 절, 루스드라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된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병이 낫는 것)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9 절). 그리고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10 절). 성령님은 바울에게 그를 고치라는 내적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 치유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도들도 아무 때나 자기들 마음대로 병을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10 절,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사야 35:6 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가 사슴 같이 떨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와 구원이 온 것에 대한 증거로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뛰고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도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여”(3:4) 보고 그를 고쳤습니다. 그는 뛰면서 찬양하며(3:8)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한 교회로서 바울을 통해 이방 교회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11 절, “우리가”(이방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신)로 생각했습니다(12 절). 13 절, 우상의 제사장이 제물로 바칠 “소와 화환(꽃다발)들을 가지고” 두 사람이 있는 집의 문 앞으로 왔습니다.

두 사도는 “옷을 찢고”(14 절) 말렸습니다.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성정’(본성)이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상숭배를 그만 두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14-18 절)

두 사도는 자신을 예배하려는 군중들을 겨우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방인들의 관심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방 사회에 우상숭배를 “방임”하셨습니다(16 절). 그러나 그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17 절, 방임과 같은 말).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공평하게 땅의 수확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추종하려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전에 베드로도 기적을 행한 다음에 자신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견지 못하는 자를 고친 다음 항변했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3:12)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기적을 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과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이 목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신적인 능력의 도구가 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무지한 대중이 그를 신격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을 신으로 떠받든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몸에 벌레를 보내 그를 죽였습니다(12:23). 헤롯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 사람에게 지나치게 존경받는 일을 경계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3. 교회를 견고하게 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옴(19-28 절)

19-20 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려 하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밖으로 “끌어 내”렸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둘러섰”습니다. 실제로 숨을 쉬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스테반의 순교 때처럼 장례를 준비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바울에게 반복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사탄이 끌어갈 때에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원수의 눈 앞에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유혹에 넘어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곳곳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은 계속 살려 주십니다. 계속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21-28 절: 회복된 바울은 더베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금방 개척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을 순회 방문했습니다. 교회를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성도를 향한 격려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계속 붙들고 있도록 가르치는 지적인 일입니다. 의지적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22 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할” 때 주님이 힘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직분을 다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하여 드렸습니다.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 목사 둘 다를 말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파송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전도와 교회 설립의 열매에 대해 보고했습니다(바울의 파송 교회는 현재 시리아의 북쪽에 있습니다. 13 장에서 전도한 안디옥은 터키 중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사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에 넘겨진 사람입니다(“위탁” =부탁, 23,26 절). 주님을 믿고 나아가 사역자로서 그들의 인생과 사역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직분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성도들도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맡깁시다.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복종할 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능력을 발휘하도록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모욕하고 생명을 위협하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작은 어려움에 두려워 떨고 있지 맙시다. 박차고 일어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환난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환난과 고통을 피하려 하면 천국을 향한 좁은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합니다. 심지어 신격화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겸손하게 주를 섬깁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만 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결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다(벧전 4:12). 우리의 고난은 우리 또한 사도 시대 이후의 보편적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환란, 사단의 유혹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다. 유쾌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만 복음을 말합시다. 복음에 따라 곳곳이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항상 복음 증거가 되게 합시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공통점

1-12 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이방 지역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에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3장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된 사람을 고쳤고, 그로 인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3,4 장). 놀라면서 호의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는 핍박했습니다.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계속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5 장).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일하십니다. 바울은 13장에서 회당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14장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놀라면서 자신을 경배하려는 이방인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려했습니다. 결국은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이기면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참고> ‘아니, 루터?’(‘안이루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안이루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 육지에서 전도한 곳의 순서를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참고> 3 절, “담대히” 말함

“담대히”(‘파래시아쵸마이’)는 ‘관’(전체)과 ‘레시아’(말함)을 합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해야 할 모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에 대한 교회의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

<참고> 5 절, “달려들다”

“달려들다”(호르마오)의 명사형 “달려들”(호르메)이 쓰였습니다. 신약에서 같은 단어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13,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돼지 떼에 들어가게 허락했을 때입니다. 돼지들이 호수로 “내리달아”(호르마오) 호수에서 목 졸려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57, 분노한 군중이 스테반에게 “달려들어”(호르마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9:29, 에베소의 시민들이 우상숭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끊겼을 때, 몇 시간 열광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호르마오).

복음이 전파될 때 이따금 군중은 귀신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악한 일을 합니다. 사단과 귀신에 떠밀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듭니다.

<참고> 6 절, “알고” 도망함

전에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천사를 통해 풀려났습니다. 그 기적을 “깨닫고”(순-호라이오, 12:12) “떠나 다른 곳으로 가”(12:17) 피했습니다.

이제 이방 지역에서 바울도 박해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순-호라이오, 14:6) 도망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참고> 9 절, “주목하여 봄”, “뺨”

바울은 걷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하여”(아테니조) 보았습니다(9 절). 그리고 고쳐주었습니다(10 절).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알로마이) 걸었습니다.

이사야 35:6 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떨 것이며”(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번역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 그리스도의 나라와 구원이 온 것에 대한 증거로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뛰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여”(아테니조) 보고 그를 고쳤습니다(행 3:4). 그는 “뺨면서”(에크-알로마이, 알로마이)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행 3:8).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한 교회로서 바울을 통해 이방 교회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참고> 16 절, “방임”=17 절, “하셨음”(허락)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가 오기 전의 이방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방임하셨습니다”(아피에미, 16 절). 그러나 그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도 “허락하셨습니다”(아피에미, 17 절).

<참고> 18 절, “겨우”

18 절, 바울과 마나바는 그들을 신으로 간주하여 제사 드리려는 지역민을 “겨우”(몰리스) 말렸습니다.

나중에 27:7,8,11 에 사도 바울이 배 여행 중에 죽을 뻔한 사건에 이 말이 쓰였습니다. 신격화되는 것은 죽음처럼 비참한 일입니다.

<참고> 19 절, 핍박하는자들이 바울을 “끌어 내침”= 행 8:3, 계시록 12:4

이 말은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8:3, 사울이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끌어다가”(쉬로우) 갔습니다. 전에 그리스도인을 끌어가며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거꾸로 그렇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4,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쉬로우) 땅에 던졌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공격합니다.

<참고> 23 절, “위탁”=26 절, “부탁”

23 절의 “위탁”과 26 절의 “부탁”은 같은 말입니다. 모두 “넘겨졌다”(파라-띠데미)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목사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에 넘겨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구약의 의식법을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
바울의 2 차 교회개척 여행
(찬송 200 장)

2026-6-25, 목

맥락과 의미

15 장은 1 차 교회개척 여행(13-14 장: 46-48 년)과 2 차 교회개척 여행(16-18 장: 49-52 년) 사이에 있던 일을 기록합니다. 앞뒤를 연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형제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의 공의회를 통해 성령께서 공동체적으로 선명한 인도를 내려 주십니다.

구약 율법 중에는 의식법(제사, 음식 정결례, 할례 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특히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약 의식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10-11 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일상이나 제사에서 먹지 못하도록 금한 음식을 정결하다고 계시하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형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500 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적인 회의를 통해 이 진리를 분명히 확인합니다.

1. 안디옥 교회에서의 변론(1-3 절)
2. 예루살렘 공회,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함(4-29 절)
3. 안디옥 교회가 사도의 편지와 위로로 기뻐하고 견고해짐(30-35 절)
4. 바울은 실라와 함께 2 차 전도 여행을 떠남(36-41 절)

1. 안디옥 교회에서의 변론(1-3 절)

1 절, 바울과 바나바가 1 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2 절, 그들과 바울/바나바와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분열)과 변론(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대립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의 골은 깊었습니다. 신앙과 구원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논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은 교회의 결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3 절, 5 명 정도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베니게(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갑니다. 그곳에 있던 교회들에게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형제들(교회)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도 힘껏 수고하여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여러 교회를 기쁘게 합니다.

2. 예루살렘 공회,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함(4-29 절)

1)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의 의견 제출(4-5 절)

4 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5 절,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6 절,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공의회(요즘으로 치면 교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교리의 중요한 사안은 모든 교인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합의해서 교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이 말씀에 따라 결정합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7 절, “변론”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교단이나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는 신학자, 목사, 교인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토론 끝에 교회는 이방인이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 과정이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2) 베드로의 증언: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그 확증(7-11 절)

먼저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성령을 주셨습니다(7,8 절, 고넬료 집의 일).

9 절,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기 전에도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 뭘 수 없는 멍에(율법 준수)를 이방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10 절). 우리도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11 절)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차별 없이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한 증거를 말해 줍니다.

3)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 간증(12 절)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들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잠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4) 야고보의 요약과 동의안(13-21 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자기 백성을 택하신 것을 목격한 베드로의 증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일치합니다.”(15 절) 이방인의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일치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16-17 절, 그 중 아모스 9:11,12 을 인용합니다. 그 예언의 뜻은 이렇습니다. “말세에 나 여호와가 돌아올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하나님의 나라)을 다시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라고 짐을 지우지 맙시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고합시다.”(19,20 절)

공의회는 야고보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이 결정에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이방인의 회심, 바울의 이방인 교회에 대한 간증, 구약 예언의 말씀의 교훈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사도들의 편지(22-29 절)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 중 십계명은 지켜야 함을 전제로 말합니다. 그러나 할례, 음식 규정, 유월절 등 의식적인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켜야 할 것 네 가지를 말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공의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지 말라고 특히 강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기 않기 위해서 이 네 가지와 연결된 구약 의식을 지키도록 결정합니다.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우상 신전과 관련된 고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다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피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음행을 피하라. 이방인들은 가까운 가족끼리도 결혼합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은 이것을 금합니다(레위기 18:6-18).

셋째, 목매어 죽인 것과, 넷째, 피가 있는 채 먹는 것. 이 두 가지는 구약 율법에서도 금지한 것입니다(레위기 17:10, 신 12:16, 23-25).

이런 결정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이 관습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음식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율법의 규정에서 점차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 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숭배이므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그냥 사서 먹을 수 있다고 허락했습니다(고전 10:25-33). 교회의 역사가 흐르면서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더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공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를 배려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에게 맞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불필요한 율법의 규칙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여 이 결정사항을 통지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바사바 유다는 앞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할 때 후보로 추천되었지만 떨어진 바사바 요셉의 친척인 것 같습니다(행 1:23).

결정사항을 알리는 편지는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23 절)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형제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성령과 우리는”(28 절)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 속에 성령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과정은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 회의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견”(19 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22,26 절)합니다.

새로운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하나님이 이루신 일, 기존의 계시의 말씀(구약), 그리고 사람들의 느낌에 대한 실제적 지혜(목회적 고려)가 고려되었습니다. 의견의 차이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동의안을 내고 결정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교회가 풍요로워집니다.

3. 안디옥 교회가 사도의 편지와 위로로 기뻐하고 견고해짐(30-35 절)

안디옥 교회는 이 결정을 담은 편지를 받고 위로 받고 기뻐했습니다(31 절). 편지를 가지고 온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여 여러 말로 “권면하여” 성도들을 “굳게” 했습니다(32 절). 선지자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책망하는 것보다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결정은 권면이기도 하지만, 위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공식 결정이나 성도의 개인적 대화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서로가 살아가야 할 길을 권면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4. 바울은 실라와 함께 2 차 전도 여행을 떠남(36-41 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2 차 교회개척 여행을 함께 계획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마가가 1 차 교회개척 여행에서 함께 갔다가 중간에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13:5,13).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었습니다”(39 절).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5 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자기 고향인 구브로(사이프로스)섬으로 가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육도로 전에 개척했던 교회를 방문합니다.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의 북쪽, 길리기아는 터키 동부입니다.

그들도 연락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움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과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서는 교회는 만장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교회개척을 할지 하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각 사람이 양심대로 분리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바나바(고전 9:6)와 마가와(골 4:10) 사랑을 회복하고 동역자로서 존중하며 함께 일했습니다.

사람(목사)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지한 의논을 통해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민고 복종할 일

교회는 의견의 차이와 논쟁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기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하나의 일치된 결정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은혜)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형제들의 연합함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가 있는 채 먹는 것 등을 절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 아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된 교회로서 성장할 가르침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교회는 또한 구체적인 작은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교회설립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16 장부터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겸손히 결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12 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시가오)는 잠잠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 장에도 같은 것을 명령합니다. 교회에서 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하려 하면,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할”(시가오) 것입니다(고전 14:30). 잠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참고> 39 절, “심히 다툼”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었습니다”(파라-옥위스모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5 에서 “사랑은 성내지(파라-옥위노마이)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그 성냄/다툼이 한때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참고> 예루살렘 교회회의는 지금의 교회 회의와 일반사회 회의의 모범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과정은 지금까지도 교회의 모든 회의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① 교회 안의 의견의 차이: 바울과 바나바가(2,5 절)

② 회의의 소집: 의론하러 모임(6 절)

③ 많은 토론: 많은 변론(6 절)

④ 결정할 내용 제안-“동의”: 베드로(6-11 절)

요즘 회의에서 “동의합니다”는 “의견을 함께 합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생각을 움직입니다”는 뜻입니다. “동의”(動議: 움직일 동). 영어에서 “I move”를 번역했습니다.

⑤ 발언과 경청: 바나바와 바울(12 절)

⑥ 재청하여 결정사항을 물음-“가하시면”: 야고보, “내 의견에는... 옳으니”(19,20 절)

전에 사용하던 “개역한글” 번역에는 “가한 줄 아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라고 요즘 회의에서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⑦ 결정 “가결”: 문서/편지로 전달(22 절)

“결정하니” 가 개역한글에는 “가결하니” 입니다. 요즘 회의에서 “가결하다”고 선언하고 회의록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예배로서의 회의

19-20 절, “내 의견에는...옳으니”(크리노)=가하니(개역한글): ‘판단한다’ 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회의의 사회자이면서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는 “옳다고 판단하시면 예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25 절, “만장일치로(호모티마돈: 한 마음으로) 결정”(도케오)= 가결(개역한글): 원래 뜻은 “가장 좋아 보인다”입니다.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8 절, “성령과 우리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도케오)= 가한 줄 알았노니(개역한글)

교회 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고 선언하고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회의에서 모두가 “예”라고 하고 “아니오”가 없을 때 “가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니오”라는 말이 나오면 투표를 합니다.

둘째, 교회가 가결하는 것은 성령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결정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참석자들이 가집니다. 또 그 결정을 성령님의 가결하심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15-18 절: 아모스 9:11-12)과 교회 안에서 이루신 일(12 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을 통해서 파악해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회의에서

- ① 말씀을 생각하며
- ②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 ③ 그래서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진행해야 하고
- ④ 결정에 대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 장

2 차 교회개척 여행(49-52 년): 루스드라에서 마케도니아로 부르심,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가 하나님을 믿음 (찬송 36 장)

2026-6-26, 금

맥락과 의미

15 장 마지막에서 바울과 실라는 교회 개척을 위한 2 차 여행(49-52 년)을 시작하였습니다.

16 장에서는 1 차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루스드라, 이고니온 등) 교회를 방문하여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원래는 북부 지역, 혹은 아시아 지역(터키 서부 지역)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마케도니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1. 디모데의 합류와 교회의 성장(1-5 절)
2. 교회개척의 장소를 성령님이 정하여 인도하심(6-10 절)
3. 빌립보의 첫 열매: 여성 루디아(11-15 절)
4. 귀신 들린 노예 소녀의 구원, 수감, 간수의 구원(16-40 절)

1. 디모데의 합류와 교회의 성장(1-5 절)

1 절, 더베와 루스드라(한 지역)에 갔습니다. 전에 전도하여 교회가 개척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성도)를 만났습니다. 교회개척팀으로 함께 일하도록 불렀습니다. 2 절,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증거) 받았습니니다.

앞서 사도행전 6:3 에 집사도 증거를 받는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계속 있어서 삶에서 객관적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직분자는 먼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시험하여(검증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입니다(딤후 3:10).

3 절, 그 지역의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성령님이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여 모든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할례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구약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유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부 규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보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기도 해야 합니다.

4 절,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 지역 교회(더베와 루스드라 등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작성”은 15:19에서 야고보가 말한 “의견”을 말합니다. 그 의견에 따라 교회는 결정했습니다(15:22,26,28).

하늘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결정을 잘 분별하여 정합니다.

5 절,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다시 전해줄 때 교회가 굳세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문제에 대해 교회의 지혜로운 결정을 따를 때 교회는 더 굳세어졌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 문에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굳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말씀을 잘 배워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지휘관의 작전 명령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총사령관인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 살아갈 작전 명령을 내려 주십니다.

예배시간에 목사는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선포합니다. 성도는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한 주간 삶의 방향과 힘을 얻습니다. 확실한 지식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굳센 믿음을 회복합시다.

5 절, “수가 날마다 늘어 가니라.” 교회의 믿음이 굳세어질 때 수적인 성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롬 10:14).

교회에서 말씀이 풍성히 전파되도록 간구합시다. 교회에 말씀이 풍성하고, 믿음이 자라서, 수적으로 자라는 복이 계속되기 바랍니다.

2. 교회개척의 장소를 성령님이 정하여 인도하심(6-10 절)

6 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터키의 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 쪽에서 볼 때 해가 뜨는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두니아(북쪽)로 가고자 애썼습니다(7 절).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이 허락되지 않음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분별한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 후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면서 손짓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습니다(10 절).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성령”(6 절), “예수의 영”(7 절), “하나님”(10 절)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교회개척팀을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환상을 통해, 그들의 신중한 판단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환상보다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말씀과 환경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3. 빌립보의 첫 열매: 여성 루디아(11-15 절)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의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는 네 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뉩니다. 빌립보는

그 네 개 지역의 첫 번째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12 절)이라고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시(콜로니)입니다.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헬라어를 쓰지 않고 로마어(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듯합니다.

바울은 이전의 교회개척은 회당 전도를 통해 시작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야외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갔습니다. 강가로 갔습니다.

13-14 절, 바울은 빌립보의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시아(터키 동부)의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14 절).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절, 그녀는 교회개척 팀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초대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판단하다)”. 사도들이 규례를 “작정”(4 절)하여 판단했듯이, 바울도 루디아를 믿는 자로 판단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또 다른 개척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4. 귀신 들린 노예 소녀의 구원, 수감, 간수의 구원(16-40 절)

빌립보에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16-18 절,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17 절) 며칠 동안 외쳤습니다.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귀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진리를 말하지만, 그 속에 거짓을 섞기 때문입니다.

전에 귀신은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막 1:25).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참 경건 없이 대적하는 태도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악한 세력을 잘 분별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우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전도자와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을 때 귀신은 교회와 성도에게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귀신에게 눌려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누구나 귀신의 놀림에서 해방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엡 2:1-7).

바울이 여중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녀는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돈을 벌던 그녀의 주인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갔습니다(19 절). 도시의 광장입니다. ‘아고라’(로마에서 말하는 포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재판정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관리 중 “상관”(20 절)은 빌립보 시의 두 명의 공동 시장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22,23 절, 고후 11:23,25, 태장).

25-26 절,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행 4 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인도로 풀려난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7-28 절, 간수들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 질러” 말했습니다. 간수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더 큰 놀라움은 바울과 실라가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29-30 절, 간수는 엎드려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30 절).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31 절). 그 사람과 온 가문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34 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 하느니라.” 복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역경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의 시민이 믿게 된 것입니다. 지역 교회가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역경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롬 8:29).

35 절, 날이 밝았을 때 관리들은 바울 일행을 감옥에서 내어 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항의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정식 재판 없이)가두었다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보내려 합니까?”(37 절)

관리들은 상관들(빌립보 시장)에게 보고합니다(38 절). 시장들은 무서워하며 찾아왔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 성에서 조용히 떠나가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지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무죄함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합류했습니다(3 절).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했습니다(10-17 절). “우리”라는 표현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거기서 이 팀에 합류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팀도 이렇게 확장해 주십니다.

민고 복종할 일

16 장에서 하나님은 교회개척자의 원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인이 요청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북부 지역: 마케도니아)에 첫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도 매 맞음과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고난을 주신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역경과 혼란 가운데서도 항상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를 계속합니다. 그분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우리”

사도행전의 “우리”라는 표현은 16:10-16에서 나오다가 그 뒤로 없어집니다. 다시 20:5에 나와서 끝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라고 기록된 부분에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녔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빌립보로 갈 때까지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다시 바울과 함께 하여 사도행전 끝까지 함께 합니다.

<작정> 4 절, “작정한 규제”

“작정한”(크리노)은 15:19에서 야고보가 말한 “의견”(크리노)을 말합니다. 그 의견에 따라 교회는 “결정했습니다”(도케오, 15:22,25,28).

“결정하다”를 명사로 하면 “규제”(도그마)입니다. “규제”는 황제의 “칙령”(도그마)에도 쓰는 말입니다(눅 2:1, 행 17:7).

하늘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결정을 잘 분별하여 정합니다.

“규제”(도그마)에서 “교의학/조직신학”(도그마틱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학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의 생애〉

연도	주요 사건들	성경본문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35	회심	행 9:1-19a
35	다메섹에서 전도	행 9:19b-22
35-38	3 년간 아라비아에 머물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옴	행 9:23-25; 갈 1:16-17
38	제 1 차 예루살렘 방문(15 일간)	행 9:26-29; 갈 1:18-20
38-43	시리아(바울의 고향-다소)와 길리기아 사역	행 9:30; 갈 1:21
43	안디옥 도착: 시리아로부터	행 11:25
43/44	제 2 차 예루살렘 방문(구제헌금 전달)	행 11:27-30, 1 2:25; 갈 2:1-10
46-48	제 1 차 전도여행 (안디옥 - 실루기아 - 더베 - 안디옥)	행 13:1-14:28
48/49	제 3 차 예루살렘 방문(총회)	행 15:1-29
50-52	제 2 차 전도여행 (안디옥 - 빌립보 - 아덴 - 고린도[18 개월] - 안디옥)	행 15:40-18:23
53-57	제 3 차 전도여행 (안디옥 - 에베소[3 년] - 마게도냐 - 그리스 ... 예루살렘)	행 18:23-21:16
57	예루살렘에 모금을 전달한 후에 체포됨	행 21:17-23:22
57-59	2 년간 가이사랴에 구금	행 23:23-26:32
59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서 심문받음	행 25:1-26:32
59-61/62	로마로 후송되어 2 년간 가택연금	행 27:1-28:31
62	로마에서 풀려남	
62-67	제 4 차 전도여행(스페인 등지)	딤후 1:5, (롬 15:24-스페인 방문계획)
64	네로의 로마 대 화재	
67/68	두 번째 감금과 순교	딤후 4:6-8

2 차 교회개척 여행(49-52 년):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테네
(찬송 23 장)

2026-6-27, 토

맥락과 의미

17 장에서는 2 차 교회개척 여행(49-52 년)을 계속합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뢰아, 그 후에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 아테네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어려움이 생기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는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1. 데살로니가 전도와 교회개척(1-9 절)
2. 베뢰아 전도와 교회개척(10-15 절)
3. 아테네 지역(그리스 남쪽) 전도와 교회개척(16-34 절)

1. 데살로니가 전도와 교회개척(1-9 절)

바울은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16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20 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1 절,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한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특별계시)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테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자연의 창조세계(일반계시)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3 절, 성경의 “뜻을 풀어” 열어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열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여셨습니다(눅 24:31,32,45). 사도 바울이 성경의 “뜻을 풀” 때에도 예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사도는 “증언”했습니다(3 절). 이 말은 모세가 백성 앞에 법규를 “세웠다”(출 21:1)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주셨다”와도 같은 말입니다(마 13:24,31).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말씀을 회당의 사람들에게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목사)의 사명은 성경 말씀의 뜻을 열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올 때는 닫혀 있던 성경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컵에 담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이미 있는 뜻을 더 자세히 풀어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그리스도로서 인정된다”는 것과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4 절, “경건한 헬라인”은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과 상류층 여성들이 복음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기업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5 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아고라’, 라틴어로는 ‘포럼’)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저자”는 우리 말로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물건만 사고 파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유대 지도자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도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모함했습니다(눅 23:2). 복음을 전할 때 주위의 엉뚱한 시기가 일어납니다. 거짓을 통해 꺾박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알고 인내합니다.

6-9 절, 아손과 형제들(성도)을 읍장, 즉 행정 최고 책임자에게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2. 베뢰아 전도와 교회개척(10-15 절)

베뢰아에서도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1 절, 베뢰아 회당의 사람들은 너그러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상하게 바울을 대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구약 성경의 계시와 일치하는지를 자세히 살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베뢰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습니(12 절). 이 사람들은 대부분 회당에 모이던 유대인과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13 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뢰아까지 따라와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14-15 절, 실라와 디모데를 베뢰아에 남겨 두고 바울은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습니다.

10,14 절, 복음을 믿은 형제들이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는 것에는 선교 여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아테네 지역(그리스 남쪽) 전도와 교회개척(16-34 절)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6 절, 바울이 아테네의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습니다”.

“분하다”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나타났던 “다툼”(15:39)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진리의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서로에게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체 도시가 진리에 배치되게 사는 것을 보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분함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에 배치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학벌, 재산, 쾌락, 건강 등이 종교처럼 우상처럼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삶의 방식(이기적, 교활함, 물질만능)에

대해 분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인해 우리 도시에 대해 분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7 절, “경건한 사람”은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방인 개종자들)과, 또 장터(포럼)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변론”은 묻고 대답하며 대화(다이어로그)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절의 “강론”과 같은 말입니다. 복음은 선포지만, 묻고 대답하며 가슴을 파고 드는 설득이기도 합니다.

18 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곧 당시 일반 철학의 양대 조류의 사람들과도 논쟁했습니다. 우리도 일반 사상과 지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더 굳게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잘 알아야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19 절, 아테네 시민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장(아고라) 북쪽 코너에 있는 장소입니다. 사상과 종교에 대해 토론하고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그들의 우상숭배와 종교심을 이용하여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지혜를 배웁시다.

23 절,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든 제단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25 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28 절, 기원전 6 세기의 시인 에피메디네스의 시를 인용). 이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입니다(29 절).

28-29 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그들의 시(기원전 3,4 세기의 아라투스과 클레안테스)를 인용합니다. 그 하나님을 금과 은과 돌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심판자로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31 절). 온 인류에게 삶을 살아갈 시간과 공간을 정하신(26 절)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그들의 우상숭배를 “공의로 심판할” 사람을 정하셨습니다(31 절). 그 심판자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상숭배 속에 있는 자연적인 신 관념(자연적 신지식, 자연적 종교심)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생각을 사람이 잘못하여 우상숭배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연적 관념에서 출발하여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관념이 도달할 수 없는 계시의 진리를 전달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표현 방식에서 출발하는 지혜와, 동시에 담대히 복음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용기 두 가지를 동시에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수용하지만, 복음으로 도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복음을 나눌 때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에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2-34 절,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했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와 여자들이 믿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교만한 아테네 지역에서 논쟁을 주관하는 아레오바고 관리를 굴복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는 바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변화(믿는 자가 생김)가 생깁니다. 우리의 상황이 막혀 있어 힘들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 때 변화가 생깁니다.

믿고 복종할 일

바울은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때로는 자연 현상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미 자리잡고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나눕니다.

그리고 복음을 순수하게 말하고 살아갈 때 항상 핍박이 있음을 압시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많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시킴을 감사합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19 절, 아레오바고 법정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전쟁의 신)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테네의 건물이 밀집된 지역인 아크로폴리스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여기서 종교와 도덕의 문제를 권위 있게 결정했습니다.

주전 5 세기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아레오바고 법정의 권위는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아레오바고의 권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레오바고는 아고라 북쪽 코너에 있는 “왕의 누각”(stoa basilicos)에서 모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사상을 검증받거나 정식 강사로서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참고> 3 절, “증언하고”

3 절,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임을 “증언했습니다”(과라-띠테미).

모세가 백성 앞에 율법을 “세웠듯이”(히브리어 שמ, 헬라어 과라-띠테미)에 사용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3:24,31,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주셨다”(과라-띠테미)에 사용된 말입니다.

<참고> 17 절, “변론하다”

17 절,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디아로게오). 묻고 대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어의 다이어로그(dialogue)라는 말이 왔습니다.